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2018년 한 해 운영돼온 전통 교육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잔치를 28일 열었다.

12월엔 '전주를 담은 백제 와당 전시·체험'

전주시가 후원하고 완판본문화관에서 주관하는 '전주를 담은 백제 와당 전시·체험'이 열린다. 백제 기와문양(와당)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체험이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13~16시까지 완판본문화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백제, 고구려, 신라 시대의 기와 문양(瓦當)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작은 전시와 함께 다양한 빛깔의 색한지로 만드는 백제 와당 문양 편지지, 연하장 만들기 무료 체험도 진행된다.



기와(瓦當)에는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성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백제의 기와 문양은 고구려, 신라의 문양과 비교했을 때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 봉황, 연화(蓮花), 인동(忍冬), 구름 문양 등은 백제 기와 문양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전시

와 체험으로 다양한 백제 와당을 만날 수 있다. 완판본문화관 안준영 관장은 "백제 와당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작은 행사를 기획했다. 12월을 맞아 다양한 빛깔의 색한지에 백제 와당 문양을 연하장이나 편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체험도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리 전통이어나가기 위해 노력 할 것”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한해 교육 성과 마무리 과정에 통해 교육공동체 간 만남·전통문화공연 선보여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켜온 거점 문화시설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2018년 한 해 운영돼온 전통 교육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잔치를 28일 열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원장 김순석)은 올해 운영된 동헌학당과 우리 전통춤 등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과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년 교육 수료행사인 파접례를 개최했다. 파접례는 글을 짓거나 책을 읽는 모임 등을 마치며 베푸는 잔치를 의미한다. 이날 중강잔치에서 참석자들은 올 한 해 연수원에서 고전(중용)을 가르친 '동헌학당'의 권건일 교수와 하반기 '한국의 춤 선을 느끼다'를 주제로 우리 전통춤을 가르친 홍화령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물로 수강생들이

직접 창작한 수건춤과 부채춤을 선보였으며, 홍화령 대표의 청명심수 공연이 가야금반주에 맞춰 펼쳐져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전통교육을 특별하게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전주 동헌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고택 4채가 위치한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올해 전주시민과 전국의 기관·단체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50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주한옥마을을 주제로 한 출판작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전통 한옥이 멋스럽게 보존된 전통문화연수원 동헌은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과 전통 의례 등의 배움터로 운영되면서 전주한옥마을이 명품 여행지로 도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순석 전통문화연수원장은 "전주한옥마을이 국내외의 여행객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인과 교육인,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문을 두드리는 교육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전통문화연수원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전주한옥마을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도 우리 전통을 고수하고,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12월 중에도 교육특강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www.dongcheon.or.kr)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271)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순창제일고등학교 주현 학생의 '무감각'

“목표 없이 공부만 하는 친구들에게 꿈 찾게 하고파”

순창제일고주현 학생,전북청소년영화제 대상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순창제일고등학교 주현 학생이 '무감각'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순창제일고등학교 3학년이 재학 중인 주현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영상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 UCC를 제작해왔다. 연기에도 관심이 많아 전북지역 청소년이 꾸민 뮤지컬 '페임'의 주연으로 공연을 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다. 주현 학생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든 채 주변의 압박만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무감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주현 학생은 "무작정 목표 없이 공부만하고 꿈도 없이 살아간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작으로 선정된 '무감각'은 지난 24일 폐막식에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장은성 기자

가람 이병기 선생 50주기 기념 기획전시... 영인본 도록 300부 한정 배포

오늘부터 보름동안 가람문학관서 열려

익산시가 가람 이병기 선생 50주기를 기념해 여산 가람문학관에서 오늘부터 2018기획전시를 보름동안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지난해 66년 만에 발견된 가람 이병기, 조운, 조남령 등 현대시조를 혁신하고 개척한 시조시인 3인의 공동시조시집 원고본인 '현대시조삼인집'의 전시와 함께 시조카드놀이와 시조마디놀이 등 '시조놀이'로 이루어진다.

현대시조삼인집은 당시 발간을 기획하였던 미 발간 원고본으로 가람, 조운, 조남령 삼인의 필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 자료에는 가람 선생의 옥중 저항시조인 '홍원-옥중-' 13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획전시에서는 그 영인본 도록의 제작과 함께 원고 전체본인 총 105장의 패널로 고스란히 전시된다. 영인본 도록은 12월 1일부터 전시기간 중 방문객에 한하여 300부 한정 배포한다. 일명 가루, 화가투라 불리는 전통놀이를 재현한 '시조카드놀이'는 가람 선

생의 시조 10편, 조운의 시조 5편, 조남령의 시조 5편에서 총 20수를 뽑아 작품 전체가 담긴 매화카드 20장과 종정만이 담긴 난초카드 20장의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가람카드 또는 매란카드도 재탄생시켰다. '시조마디놀이' 역시 삼인의 20수를 시조의 율격에 따라 12마디씩 분할하여 총 240개의 시조마디로 제작하여 관람객 스스로 자석보드에 붙여가며 시조를 직접 완성해보는 놀이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기야 합니다